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토크쇼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05 닥터 365 30 아침 연속극 <청담동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토크쇼(재)	30 MBC 생활뉴스 45 2014 MBC 창사특집 함께하는 세상 명사들의 사랑나눔 1~2부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갈대까지 가보자(재)	00 KBS네트워크 특선 대영문화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50 황금의 펜타곤 2(재)	10 KBC 생활뉴스 30 한국의 맛
12	40 채널A 뉴스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요말	00 MBC 정오뉴스 20 문화 4색	00 SBS 12 뉴스 45 닥터 365 55 중흥 S-클래스배 2014 고교동문골프대회(재)
1	40 김부장의 뉴스통	00 TV 책을 보다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추적 60분(재)	05 TV속의 TV 55 날씨와 생활
2	50 직언직설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부타임 10 7인의 미스코리아(재)	0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KBS 뉴스 10 생명최전선(재)	00 꼬마신랑 콩도령 30 자동 공부책상 위키	00 SBS 뉴스 10 질척고 질척하는 법 식사하셨어요(재)
4	00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시사진단 55 토크 생활제조	00 TV 유지원 콩다공 30 애니월드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재)
5	00 하종대의 패도단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외계가족 줄리폴리 20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슈퍼라이드 15 KBC 저녁 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호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10 생활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활송 투데이
7	2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8	20 갈대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0 발칙한 사육사 이야기, 다빈치 노트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TV동화 빨간 자전거 스페셜	00 월화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	00 SBS 대기획 <비밀의 문>
11	00 모큐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KBS특선 <세상을 바꾸는 생각 습니다>(재)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토크메이트
12	10 여변호사가 말한다 <여자(재)> ①:20 닥터 지.바고	30 국악한마당 ①:20 KBS 네트워크 45 시사상상 45 뉴턴의 사과나무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①:35 영상앨범 산(재)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①:45 MBC 플러스특선 쇼 챔피언



한겨울 추위... '부성에'로 녹인다

'인터스텔라' 800만 관객 돌파 '국제시장' 개봉 앞두고 관심 급증

극장가를 뒤덮은 아버지 열풍이 뜨겁다. SF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부성에에 방점을 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가 8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극장가를 강타한 데 이어 연말 한 국영화 최대 기대작인 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도 급변했던 한국사회에서 아버지의 힘겨운 삶을 조명하기 때문이다. '국제 시장'은 개봉을 3주 앞두고 있으면서도 예매 점유율 9위에 오 르 정도로 관심을 얻고 있다.

◇ '인터스텔라' 스토리의 핵심 '부성에' 올해 개봉한 외화 가운데 '겨울왕국'에 이어 두 번째로 800 만 관객을 돌파한 '인터스텔라'는 SF 영화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야기의 뿌리는 스필버그식 가족애에 맞닿아 있다. 우주로 나가면 다시 지구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자녀의 삶을 위해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평생토 록 그런 아버지를 기다리는 딸의 절절한 감정이 영화의 주요 연료다.

영화는 한국전쟁, 파독 광 부, 베트남 전쟁, 이산가족 상봉 등 한국 현대사에 발자취를 남 긴 굵직한 사건을 따라간다. 주인공 덕수 (황정민)는 그러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홀로 헤쳐 가며 전쟁으로 폐비박산이 난 집안을 일으킨다.

장남이었던 덕수는 공부 잘하는 남동생의 등록금을 내기 위 해, 또 동생을 시집보내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다. 산업 역군으로 독일로, 베트남으로 떠났던 그는 삶과 죽음이 종이 한끝 차이인 위험지역을 계속해서 누비며 가족들을 챙긴다. 노 년의 덕수는 한국전쟁 때 헤어져 아버지(정진영)를 떠올리며 이같이 울조린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윤제균 감독은 연출의 변에서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 워던 그 시절에 가족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우리 아 버지 세대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 백수라도 좋아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인터스텔라'나 '국제시장' 같은 대작은 아니지만, 부성을을 강조하는 다른 영화들도 극장가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김상경 주연의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에 등장하는 아빠 태만 (김상경)은 대하소설 같은 '국제시장'의 아버지 덕수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아빠'다.

명문대를 나온 그는 사업 실패 후 10년째 집에서 방둥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태만은 고충불만에 허덕이는 우리 시대 아빠들 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다.

지난달 말 개봉한 '나의 독재자'는 독재정권이 장악한 엄혹 한 시대, 이 땅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살기 어려웠는지를 조명 했다는 점에서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보다는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자신의 길을 모색했던 '국제시장'과 공통분모가 더 큰 영화다.

영화에서 태식(박해일) 아버지 성근 역을 맡았던 설경구는 최근 인터뷰에서 "독재자처럼 군림했지만, 결국에는 지식들에 게 먹힌 아버지들의 이야기,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라고 했다.

실제로 '인터스텔라'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발 사를 앞둔 우주선에 앉아있는 주인공 쿠파(매튜 맥커너히)의 표정과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머피(아역 맥켄지 포이)의 표정 을 교차로 보여주는 시퀀스다.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쿠파의 사정과 아빠와 헤어지기 싫 어하는 딸의 표정이 교차하면서 가족애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영화는 두드린다. 특히 영화 말미는 거의 아버지와 딸의 감정 교류로 채워진다. 우주와 지상에서 벌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는 대부분 부성애로 수렴해 설명된다.

정지국 평론가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등 가족코드를 영화 내용에 잘 버무렸다"고 말했다.

◇ 고생한 아버지들을 위한 헌사 '국제시장' 윤제균 감독이 '해운대'(2009) 이후 5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국제시장'은 '인터스텔라'보다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삶을 건 드린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부모광장)	14:45 코코몽2	19:00 지파이터스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0:10 EBS 특강	15:00 신나는 요정 학교	19:30 EBS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국한직업
07:00 코코몽2(재)	10: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울리베아	20:40 다큐 오늘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대기행 <가을낭만 기행, 스코틀랜드>	15:45 피터 래빗	20:50 세계대기행 <핀란드>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통영바다와 사랑에 빠지다>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재)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1:50 EBS 다크프라임 <가족쇼>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30 오스카의 오아시스	22:45 리얼극장 <아빠와 사촌기>
08:20 두다다(재)	13:10 생활백과	16:45 콧피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걸문록 아틀라스 <지중해 대기행>
08:35 방귀대장 뽀뽀이	13:25 문화유산 코리아	17:00 방귀대장 뽀뽀이(재)	24:05 지식채널e(재)
08:50 콧피와 친구들	14:00 두기탐험대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4:10 EBS 인문학 특강
09:05 원더볼즈(재)	14:15 우당탕탕 아이쿠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9:20 출동! 슈퍼펍(재)	14:30 부릉! 부릉! 부릉미즈	17:45 두다다(재)	
09:35 아기 고릴라 동동		18:00 생활송 특! 특! 보너하니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열기 <유종현, 윤선명의 국어>	12:10 2016 수능개념 <윤선명의 영어>
00:50 <오광석의 수학 I>	13:05 <윤선명의 영어>
01:40 <오랜지의 영어>	14:00 고등예비과정 <김소연의 수학 II>
02:30 수능김집이<문학>	14:50 <주혜연의 영어>
03:20 <수학 I>	15:40 2016 수능열기 <오랜지의 영어>
04:10 <미적분과 통계기본>	16:30 <유종현, 윤선명의 국어>
05:00 <영어특해 유형>	17:20 <오광석의 수학 I>
06:40 <박근영의 미적분 I>	18:1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07:30 <차현우의 미적분 II>	19:20 <최은진의 수학 I>
08:20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20:00 <김소연의 수학 II>
09:10 <독서와 문법>	20:50 <주혜연의 영어>
10:0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21:50 수능김집이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10:50 <최은진의 수학 I>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EBS플러스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6:20 <수학 5-2>
07:30 친절할 수학 익힘풀이 5-2	16:50 <수학 6-2>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수학집중 5-2>
08:30 한경TESAT 시험대비강좌	18:00 TV 중학 <영어 3-2>
09:10 TV 중학 <국어 1(상)>	18:40 <수학 3-2>
09:50 <역사 2>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국어 3(하)>
10:30 <수학 2(상)>	20:00 EBS 기획특강 <수학 1(하)>
11:10 <수학 2(하)>	21:40 EBS UCC공모 나미디 <사회 3-2>
11:50 <수학 2(하)>	22:00 등업선공 <과학 2(하)>
12:30 등업선공 <수학 2(하)>	22:4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13:10 <수학 2(하)>	23:20 중학e포스 영문법 2 <수학 2>
13:50 <수학 2(하)>	24:00 백점공략 <과학 2>
14:30 <수학 2(하)>	24:30 <과학 2>
15:20 만점왕 <수학 4-2>	
15:50 피터 래빗 <수학 4-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일(음 10월 11일 丁未)

**子** 36년생 목목히 나아가자. 48년생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적극적 으로 참여해야 한다. 60년생 아무런 소용이 없다. 72년생 단순한 관점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84년생 눈부신 햇살처럼 행운 이 비취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86

**丑** 37년생 성과물이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된다. 49년생 방비책을 든 든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61년생 우연히 맞닥뜨릴 수도 있 는다. 73년생 만사여의하리라. 85년생 지층 전망이 밝아질 것 이다. 행운의 숫자 : 06, 73

**寅** 38년생 순조로워서 경사가 겹칠 수도 있다. 50년생 서로 어울릴 수 있어야만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 62년생 성급한 확장보다 는 내실 있는 유지가 절실하다. 74년생 쉽게 결론지어지기는 어 려운 도량이다. 행운의 숫자 : 14, 49

**卯** 39년생 기막힌 인연임을 알게 되리라. 51년생 탈은 없을 것이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도 된다. 63년생 가장 시급한 일에만 우선 적으로 집중했을 때 성과가 현저할 것이다. 75년생 결정적인 시 기이니라. 행운의 숫자 : 33, 87

**辰** 40년생 반드시 확인해야만 돌발적인 형세를 방지한다. 52년생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64년생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76년생 성과 없이 유두무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다. 행운의 숫자 : 44, 95

**巳** 41년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한 곳에 몰입해야만 양호한 결과가 있느니라. 65년생 다양한 변 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낫다. 77년생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태 의연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50, 60

**午** 42년생 바람직한 계기가 조성되어가는 마당이니라. 54년생 미 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당황하리라. 66년생 기회가 주 어질 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78년생 재물이오니 즐니 진 력에 보자. 행운의 숫자 : 67, 01

**未** 43년생 기존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버리고 확실히 전환해 보자. 55년생 미흡하더라도 일단락을 짓고 볼 일이다. 67년생 공허한 명분 보다는 현실적인 실리가 더 낫다. 79년생 서두르면 빈틈 을 보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82, 28

**申** 44년생 현안을 타결하느나 못하느나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56년생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68년 생 관심의 대상이 생길 것이니라. 80년생 이를 데 없이 귀하지만 쉽게 잃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9, 19

**酉** 45년생 가능하다면 대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 57년 생 다다익선임을 알라. 69년생 현실 여건에 착실히 순응하는 것 이 최상책이다. 81년생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를 수도 있으니 주 의하자. 행운의 숫자 : 20, 89

**戌** 46년생 원래의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재추진할 필요가 있 다. 58년생 주변의 상황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양태이다. 70년 생 추진력을 강화해야 할 때가 되었다. 82년생 흐르는 물처럼 순 조로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8, 40

**亥** 47년생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한 다. 59년생 당면 과제에 집중해야 할 중차대할 시기에 와 있다. 71년생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 수 태를 필요가 없다. 83년생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1, 5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주말극 '가족끼리...' '전설의 마녀' 시청률 상승

KBS 2TV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와 MBC TV 주말극 '전설의 마녀'가 나란히 시청률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가 족끼리 왜 이래'는 37%, '전설의 마녀'는 23%를 기록하며 각각 자체 시청률을 경신했다.

지난달 23일 시청률 35%를 넘어서며 또 하나의 '국민드라 마' 탄생을 기대하게 하고 있는 '가족끼리 왜 이래'는 김상경-김현주의 코미디 호흡이 물이 오르고, 유동근-김서라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고조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달 16일 시청률 20%를 돌파한 '전설의 마녀'는 교도소 에서 만나 정을 나누며 '대안 가족'이 된 네 명의 여자가 이제 출소하면서 새롭게 펼쳐지는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날 방송된 다른 주말극의 시청률은 MBC '장미빛 인 생' 18.6%, SBS '미녀의 탄생' 6.9%, SBS '모던파머' 4%로 나 타났다.



가족끼리 왜 이래

"연인됐어요~"

이희준·김옥빈 드라마 촬영중 알콩달콩

배우 이희준(35)과 김옥빈(27)이 연인이 됐다.

이희준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일 "이희준과 김옥빈 이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좋은 감정으로 발전해 교제한 지 1~2 개월 정도 됐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를 6개월간 촬영하면서 고생한만큼 두 사람은 휴식 차원에서 현재 동반 유럽 여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준과 김옥빈은 지난달 막을 내린 JTBC 연속극 '유나의 거리'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희준은 연극무대에서 활동하다 2012년 '낭랑해 굴러온 당



신'으로 스타덤에 올랐으며 이후 드라마 '전우치' '직장의 신'과 영화 '해무' 등에 출연했다.

영화 '여고괴담4'로 데뷔한 김옥빈은 영화 '다세포소녀' '박 쥐'와 드라마 '칼과 꽃' 등에 출연했다. /연합뉴스